

## 고객인터뷰 요약서 (인터뷰 정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제목

관광지 CCTV를 활용한 혼잡도 표현 프로그램

이름

조경수

### 인터뷰 질문 정리

### 인터뷰 답변들

-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가요?
-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여행을 계획 할 때, 혹은 여행 중에 지도를 제외하고 사용했던 어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어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여행지(관광지)가 붐빌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여행지(관광지)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이 간 적이 있나요?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 관광지를 선정할 때, 관광 코스를 만들 때 관광지의 혼잡도를 고려하나요?
-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혼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광지가 혼잡한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한산한 것을 선호하나요?
- 자유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 위 사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플의 초기 UI 사진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면 쓸 것 같나요?
- 이 어플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뭔가요?
- 이 어플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기능이 있나요?

- 네
- 숙소로부터 거리가 가장 중요한거 같고, 숙소와 가장 가까운 곳을 마지막에 방문하려고 해요
- 국내 여행일땐 네이버, 국외 여행일땐 구글 맵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거 같아요. 네이버 어플은 국내 한정에서 방문하려는 곳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이 정확한 점이 좋고, 구글맵은 지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아요
- 여름 물놀이 관광지나 스키장 같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봄비는게 상수라 생각하고 갔던거 같고,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따로 판단은 못하고 식사타임 전후를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 새해 첫날 정동진이 아무래도..인파를 예상하고 정말 일찍(새벽 세시반쯤) 도착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더 많았고 근처 편의 시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 대다수가 보통은 혼잡도를 감수하고 관광지를 선정할 것 같고, 그렇게까지 큰 고려대상은 아닌거 같아요. 다만 위에서 언급한 새해 첫날 정동진이나 계절 관광지 같은 경우 근처 교통현황 및 관광지 주변 카페 같은 편의시설의 혼잡도를 알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눈치게임 성공 실패 얘기하는 것 보면, 아예 고려대상에서 배제할 요소는 아닌거 같아요.
- 보통은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빠르게 근처에서 기다릴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근처 머물만한 카페나 상업시설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가는 편이에요
- 한산한 것
- 날씨가 미리 확인한 예보와 다르다든지, 예상보다 사람이나 줄이 더 길다든지..와 같은 변수들이 좀 힘든거 같아요

- 네
- 맨 마지막 왼쪽 사진에 시간대별 혼잡도 알려주는게 엄청 좋은거 같아요
- 숙소나 집의 위치도 코스에 포함해서 최대한 쾌적하게 출발/복귀할 수 있도록 코스가 설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올 때 교통이 혼잡할것으로 예상 이 되면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곳이 최대한 숙소에 가까울수록 힘도 덜 들고 시간과 돈도 아낄 수 있을것같아요

## 고객인터뷰 요약서 (인터뷰 정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제목

관광지 CCTV를 활용한 혼잡도 표현 프로그램

이름

최중윤

인터뷰 질문 정리

인터뷰 답변들

-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가요?
-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여행을 계획 할 때, 혹은 여행 중에 지도를 제외하고 사용했던 어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어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여행지(관광지)가 붐빌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여행지(관광지)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이 간 적이 있나요?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 관광지를 선정할 때, 관광 코스를 만들 때 관광지의 혼잡도를 고려하나요?
-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혼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광지가 혼잡한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한산한 것을 선호하나요?
- 자유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 위 사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플의 초기 UI 사진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면 쓸 것 같나요?
- 이 어플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뭔가요?
- 이 어플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기능이 있나요?

- 적당히 세우는 편,
- 친구와 본인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최우선, 비행기든 숙소든 뭐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구글, 유튜브, 지인  
앱은 과거에 트리플 한두번 사용, 요즘은 사용 x, 이유는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못느낌. 이미 구글과 유튜브가 잘 되어있어서, 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낌
- 교통 때문에 예상시간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는 정도, 그 외에는 혼잡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판단한 적이 없다.
- 그러했던 경험은 없다.
- 신경쓰지 않는다. 어차피 이동시간과 교통관련해서만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 마찬가지로 신경쓰지 않는다.
-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 같이 여행을 가는 친구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

- 
- 한번쯤은 써 볼 것 같다.
  - 그 장소의 화면과 혼잡도를 보여준다는 부분이 신선했다.
  - 잘 모르겠다.

## 고객인터뷰 요약서 (인터뷰 정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제목

관광지 CCTV를 활용한 혼잡도 표현 프로그램

이름

공기현

### 인터뷰 질문 정리

### 인터뷰 답변들

-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가요?
-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여행을 계획 할 때, 혹은 여행 중에 지도를 제외하고 사용했던 어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어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여행지(관광지)가 붐빌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여행지(관광지)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이 간 적이 있나요?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 관광지를 선정할 때, 관광 코스를 만들 때 관광지의 혼잡도를 고려하나요?
-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혼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광지가 혼잡한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한산한 것을 선호하나요?
- 자유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 위 사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플의 초기 UI 사진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면 쓸 것 같나요?
- 이 어플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뭔가요?
- 이 어플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기능이 있나요?

- 철저히 세우는 편, 30분,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짠다
- 맛집을 찾는 걸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음식이 맛있어야 여행이 더욱 즐거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기본적으로 구글 지도를 이용한다. 식당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리뷰,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찾아본다. 어플은 사용해본 적이 없다. 직접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리뷰를 보고 사람이 많았다고 할때를 파악하거나, 일출때의 성산일출봉등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가고 싶어할 시간대를 예상하는 편이다.
- 알아보고 간 맛집에 웨이팅이 있을때 기분이 안좋아진다. 20분 이상 웨이팅을 하면서 계획이 틀어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 관광지때문은 아니고, 관광지 근처의 맛집에 웨이팅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도 고려하기도 한다.
-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들 것을 고려하여 조금씩 계획을 앞당기는 식으로 조정한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으나, 놀이공원이나 맛집등 예약 혹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것을 정말 싫어한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 관광지의 맛집 리뷰나 평점이 사이트별로 제각각인게 가장 불편하다. 네이버지도는 평점이 너무 높고, 카카오맵은 평점이 너무 낮다. 그래서 각각 기준을 잡고 둘 다 비교를 해서 목적지를 선택하는 편이다.

- 
-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을 가지고 여행코스를 짜주는 부분이 신선했다. 이 기준이 좀 더 다양하면 좋을 것 같다.
    - 점심, 저녁에 먹을 맛집을 지정해두고 그걸 고려하여 코스를 짠다던지
    - 여행을 남자끼리가는지, 여자끼리가는지 커플끼리가는지에 따른 여행 성향에 따라서 코스를 짠다던지(가성비, 감성 등등)
    - 정적인 여행을 선호하는지, 액티비티가 많은 여행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코스를 짠다던지 하면 좋을 것 같다.
  - UI를 구현할 때 잡다한 것 없이 가볍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여행, 맛집 관련 어플들이 전반적으로 다 무겁다. 또한 나는 여행 코스 중 맛집을 고를 때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사용하는데, 둘 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된 리뷰만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리뷰를 따오던지, 키워드를 따와서 한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고객인터뷰 요약서 (인터뷰 정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제목	관광지 CCTV를 활용한 혼잡도 표현 프로그램		
이름	김성재		
인터뷰 질문 정리		인터뷰 답변들	
<p>1.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가요?</p> <p>2.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p> <p>3. 여행을 계획 할 때, 혹은 여행 중에 지도를 제외하고 사용했던 어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어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p> <p>4. 여행지(관광지)가 붐빌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p> <p>5. 여행지(관광지)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이 간 적이 있나요?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p> <p>6. 관광지를 선정할 때, 관광 코스를 만들 때 관광지의 혼잡도를 고려하나요?</p> <p>7.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혼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p> <p>8. 관광지가 혼잡한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한산한 것을 선호하나요?</p> <p>9. 자유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p> <p>1. 위 사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플의 초기 UI 사진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면 쓸 것 같나요?</p> <p>2. 이 어플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뭔가요?</p> <p>3. 이 어플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기능이 있나요?</p>		<p>1. 여럿이서 갈 때는 세우지 않으나, 혼자 여행을 갈 때에는 열심히 세우는 편이다.</p> <p>2. 동선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깔끔한 동선이 최우선이다.</p> <p>3. 트리플을 사용해봤다. 장점으로는 가고싶은 목적지를 핀을 찍어놓으면 이어주는거랑, 관광지를 추천해주는 것, 가게부를 적어 n빵등 정산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았다.</p> <p>4. 구글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혼잡한 지역이나 시간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판단하거나, 리뷰나 후기를 보고 판단한다.</p> <p>5. 식당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평가에 따라 1~2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너무 길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플랜b로 알아본 식당으로 이동한다.</p> <p>6. 사람이 많이 몰릴때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가야지 진정한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7.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좋다.</p> <p>8. 혼잡한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사람이 많아야 정말 좋은 곳을 왔다는 느낌이 들고 웨이팅이 있어야 정말 맛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놀이공원등 줄을 서야 하는 경우에도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p> <p>9. 리뷰를 볼때 안 좋게 평가한 리뷰가 잘 안보이고 필터링되는 경우가 많아서그런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냄새가 난다던지... 긍정적 리뷰와 부정적 리뷰를 구분지어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p> <p>-----</p> <p>1.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p> <p>2.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을 가지고 여행코스를 짜주는 부분이 신선했다. 동선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각자 입맛에 따라 코스를 다르게 추천해준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p> <p>또한 혼잡도또한 사진과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점이 트리플과 비교했을때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다.</p> <p>3. 트리플에서 제공하는 가게부서비스를 채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하면 계획을 짜는 사람만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앱을 깔게 되지 않을까? 또한 관광지 설명에 날씨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cctv화면만 가지고는 날씨를 알기엔 부족하기에 기상청 정보를 가져와 몇날 몇시의 날씨까지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또한 날씨에 따라 비가 올때엔 실내 관광지를 추천하는 식의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p>	

## 고객인터뷰 요약서 (인터뷰 정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제목	관광지 CCTV를 활용한 혼잡도 표현 프로그램		
이름	신제원		
인터뷰 질문 정리		인터뷰 답변들	
<p>1.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가요?</p> <p>2.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p> <p>3. 여행을 계획 할 때, 혹은 여행 중에 지도를 제외하고 사용했던 어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어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p> <p>4. 여행지(관광지)가 붐빌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p> <p>5. 여행지(관광지)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이 간 적이 있나요?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p> <p>6. 관광지를 선정할 때, 관광 코스를 만들 때 관광지의 혼잡도를 고려하나요?</p> <p>7.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혼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p> <p>8. 관광지가 혼잡한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한산한 것을 선호하나요?</p> <p>9. 자유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p> <p>1. 위 사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플의 초기 UI 사진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면 쓸 것 같나요?</p> <p>2. 이 어플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뭔가요?</p> <p>3. 이 어플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기능이 있나요?</p>		<p>1. 철저히 세우는 편, 점심 저녁 메뉴와 그 사이에 어디를 가서 몇시간을 있는지도 계획을 미리 다 짜놓고 출발한다.</p> <p>2.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동선낭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p> <p>3.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트리플을 사용한다. 네이버지도로 위치, 카카오맵으로 별점을 확인하고 트리플에서 핀을 찍어서 목적지를 공유하는 기능을 주로 사용했다. 트리플 단점으로는 구글 지도를 채용하다보니 한국에서 쓰기엔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번역이라던지 영어 이름이라던지 하는 부분에서</p> <p>4. 당연히 붐빌 것 같은 시간을 예측했었다. 야경이 예쁜곳은 밤에 사람이 많거나 하는 식으로</p> <p>5. 없었다.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거나 한 적은 있지만 잘 기다리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다.</p> <p>6. 관광지때문은 아니고, 관광지 근처의 맛집에 웨이팅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도 고려하기도 한다.</p> <p>7. 잘 기다리는 스타일이라 그냥 혼잡한 상태에서 관광한다.</p> <p>8.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산한 것을 선호한다. 다만 꼭 이 시간대에 가야하는 야경 명소라던가 하는 곳의 경우에는 혼잡하더라도 가는 편이다.</p> <p>9. 혼자 여행할 때, 여러 가지 메뉴를 조금씩 먹어볼 수가 없는 것이 불편했었다.</p> <p>-----</p> <p>1.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p> <p>2. 혼잡도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 코스를 보기 좋게 짜주는 것이 좋았다. 사용자가 어떤 관광지는 꼭 이시간대에 가야한다고 지정해둔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여 코스를 짜주면 좋을 것 같다. 야경 명소라던지 하는 곳은</p> <p>3. 트리플의 좋은 점들을 잘 흡수해서 좋은 한국형 여행 어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혼잡도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여행지의 사람들이 줄어들거같은 시점에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p>	

## 고객인터뷰 요약서 (인터뷰 정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제목

관광지 CCTV를 활용한 혼잡도 표현 프로그램

이름

이동건

인터뷰 질문 정리

인터뷰 답변들

-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가요?
-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여행을 계획 할 때, 혹은 여행 중에 지도를 제외하고 사용했던 어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어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여행지(관광지)가 붐빌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여행지(관광지)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이 간 적이 있나요?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 관광지를 선정할 때, 관광 코스를 만들 때 관광지의 혼잡도를 고려하나요?
-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혼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광지가 혼잡한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한산한 것을 선호하나요?
- 자유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 위 사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플의 초기 UI 사진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면 쓸 것 같나요?
- 이 어플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뭔가요?
- 이 어플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기능이 있나요?

- 음식점, 숙소 위주로 철저히 세우는 편, 관광지 동선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짰다.
- 숙소의 위치와 지역의 유명 관광지가 가까운지 여부가 중요하다.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얼른 숙소에 와서 정비할 수 있고,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야놀자 레저 - 요트 예약, 티켓 - 숙소랑 연계해서 근처의 관광지도 보여주고, 전 여행자들의 행적도 보여주고, 숙소도 편하게 예약 - 리뷰가 꽤나 정확하다. 좋은 평가와 안좋은 평가 모두  
네이버 사이트 - 음식점, 카페, 볼거리 - 블로그 후기까지 볼 수 있다는 포털사이트라는 점이 좋음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 지도로써만, 이동 시간 고려만을 위해선  
트리플 - 안써봄  
인스타 - 서울 볼거리 top10같은 게시물
- 요일로 판단했다. 척도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웨이팅 정도는 찾아본다.
- 30분 이상 웨이팅이 있는 경우에 플랜b로 넘어간다. 2가지 정도 대비를 해놓는다.
- 고려하지 않는다.
- 자연스럽게 지연된만큼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게 둔다.
- 놀이공원정도는 한산하면 좋겠으나 그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 계획을 짜서 왔는데 친구가 잘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좀 불편했다.

- 
-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코스 알고리즘이 잘 짜여있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모르는 지역 여행이면 한번 따라볼 것 같다.
  - 특정 관광지 주변의 다른 관광지나 맛집, 놀거리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 리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카카오맵에 이번에 추가된 기능 - 이 사람의 평점 평균 이런 걸 채용하면 어떨까.

## 고객인터뷰 요약서 (인터뷰 정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제목

관광지 CCTV를 활용한 혼잡도 표현 프로그램

이름

손민규

### 인터뷰 질문 정리

### 인터뷰 답변들

-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가요?
  -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여행을 계획 할 때, 혹은 여행 중에 지도를 제외하고 사용했던 어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어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여행지(관광지)가 붐빌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여행지(관광지)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이 간 적이 있나요?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 관광지를 선정할 때, 관광 코스를 만들 때 관광지의 혼잡도를 고려하나요?
  -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혼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광지가 혼잡한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한산한 것을 선호하나요?
  - 자유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 위 사진들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플의 초기 UI 사진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면 쓸 것 같나요?
  - 이 어플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뭔가요?
  - 이 어플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기능이 있나요?

- 철저히 세우는 편, 언제 무엇을 할지 정도는 다 계획을 한다.
  - 맛집을 찾는 걸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관광지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 네이버지도를 사용하여 직접 탐색하고, 어플은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항상 직접 계획하였다.
  - 굳이 판단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정도까지 계획을 짜지는 않았다.
  - 놀이공원에서 줄을 너무 오래 기다린다거나, 관광지에서 입장 줄이 너무 길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
  - 고려해본 적은 없다. 혼잡해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 그냥 기다리는 편이다.
  - 한산한 것을 선호한다.
  -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 
-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 혼잡도를 체크해서 그걸 고려하여 코스를 알아서 짜주는 기능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 뭔가 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능들의 짜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이것들을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나, 특색이 없다는 느낌도 조금 받았다. 혼잡도 기반 관광 코스 설계라던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한 관광 코스 설계가 가장 특색을 드러내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여 특색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